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에 대하여*

- 기존 논의 검토를 중심으로 -

문 병 열(한남대)

< 목 차 >

1. 서론
2.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출현 환경
3.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
4. 결론

국문초록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은 원칙법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법이란 ‘화자가 사태를 원칙적·불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청자에게 알림’으로 정의되는 서법이다. 그러나 ‘-니-’가 실현되었음에도 원칙법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 문장들도 중세 한국어 문헌들에서 상당수 확인된다. 이 때문에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에 대한 여러 관점의 논의들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동명사적 관점’, ‘시제·상의 관점’, ‘서법의 관점’, ‘청자에 대한 태도의 관점’, ‘공형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 관점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선어말 형태 ‘-니-’는 결합 단위로는 분석되지만 기능 단위로는 분석되지 않는 공형태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선어말 형태 ‘-니-’의 기원적 구성인 ‘동명사 어미(-ㄴ) + 계사’의 영향으로 ‘-니-’가 선호되는 맥락과 선호되지 않는 맥락이 존재하며 기존 논의들에서 제시한 ‘-니-’의 기능은 모두 ‘-니-’가 선호되는 맥락의 의미이지 ‘-니-’의 본질적 의미·기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핵심어 : 선어말 형태 ‘-니-’, 시제, 상, 서법, 동명사 어미, 공형태

1. 서론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은 원칙법으로 알려져 있다.¹⁾ 원칙법이란 고영근(1981)의 용어로 ‘화자가 사태를 원칙적·불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청자에게 알림’으로 정의되는 서법이다. 다음은 원칙법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문장들이다.

(1) 가. 사람미 살면 주그미 이실씩 모로매 늙느니라 <석상 11:36>

나. 사람도 오라면 늙느니 人生에 免흐리 업스니이다 <석상 3:17>

(1가)의 문장은 ‘사람이 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늙는다’라는 사태를 화자가 원칙적·불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청자에게 알리고 있다. (1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도 오래되면 늙으니 인생에서 면할 사람이 없다’라는²⁾ 사태를 원칙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청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1가,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 5. 25.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장에서 토론을 통해 조언혜 주신 서울대학교 황선엽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甚深한 謝意를 표한다.

1) 이송녕(1961), 유창돈(1964), 이남덕(1967), 허웅(1975)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들에서도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을 원칙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칙법’이라는 용어는 고영근(1981)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 (1나)의 문장은 ‘사람도 오래되면 늙으니 인생에서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와 같이 현대역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문장으로 표현된 ‘사태’를 나타내기 위해 상대효 입법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 모두 용언 어간 뒤에 ‘-니-’가 실현되었다.

‘-니-’가 실현되었음에도 원칙법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 문장들도 중세 한국어 문헌들에서 상당수 확인된다. 다음은 ‘-니-’가 실현된 문장이지만 원칙법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예문들이다.

(2) 가. 내 毗奈耶에 묻져 願 ㄱㄹ초미 이쇼니라 <능엄 7:22~23>

나. 너를 외에 아니 흐노니라 <법어: 3>

(2가, 나)의 문장들은 원칙적이거나 불변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 자체가 원칙적·불변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영근(1981)에서는 (2)에 실현된 ‘-니라’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파악하였으며, 김영옥(1989)에서는 이때의 ‘-니-’를 공형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을 원칙법으로 보지 않는 논의들도 있다. 임흥빈(1982)에서는 선어말 어미 ‘-니-’를 설정하지 않고 동명사 어미(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계사 ‘-이-’의 결합으로 파악하였다. 이인모(1976), 홍중선(2008) 등에서는 이를 시제와 관련시켜 설명하였고, 나진석(1971)에서는 이를 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니-’의 기능을 ‘청자에 대한 태도’로 설명한 논의들도 확인되는데 장윤희(2002)에서는 ‘-니라’의 ‘-니-’를 ‘실제 청자를 염두에 둔 듯이 말하다’ 정도의 추상적인 양태 의미로 파악하였고 이유기(2013)에서는 ‘-니-’의 기능을 ‘청자의 인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니-’는 의문문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의문문에 ‘-니-’가 실현된 예들이다.

(3) 가. 내 아래 아니 니르더니여 <월석 12:19>

나. 須達이 무로디 여섯 하느리 어늬사 못 도흐니잇가 <석상 6:35>

의문문에 실현된 ‘-니-’에서는 원칙법과 관련된 의미·기능이 확인되지 않

는다. 이 때문에 의문문의 ‘-니-’에 대해서는 평서문의 ‘-니-’와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들이 있는가 하면(고영근 1981, 김영옥 1989, 장윤희 2002, 이유키 2013 등), 평서문의 ‘-니-’와 의문문의 ‘-니-’를 일관되게 설명하려는 논의들도 확인된다(이승녕 1961, 나진석 1971, 허웅 1975 등).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와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니-’를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4)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구분(1)³⁾

가. 일원론적 관점: ‘-니-’를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함.

나. 다원론적 관점: ‘-니-’를 기능에 따라 여러 형태소로 구분함.

- 의문문의 ‘-니-’: ‘-니₁-’

- 평서문의 ‘-니-’: ‘-니₂-’ 원칙법 관련 의미를 지님.

‘-니₃-’ 원칙법 관련 의미가 없음.

다원론적 관점의 경우, 의문문의 ‘-니₁-’를 형태소로 분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뉠 수 있고, 역시 평서문의 ‘-니₃-’를 형태소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선어말 형태 ‘-니-’를 세 가지로 분석한 논의로는 김영옥(1989), 장윤희(2002) 등이 있다. 김영옥(1989)에서는 ‘-니₃-’을 공형태로, 장윤희(2002)에서는 ‘-니₃-’을 청자 관련 요소로 파악하였다. 한편, 고영근(1981)에서는 ‘-니₃-’이 포함된 ‘-니라’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파악하고 있다.

중세 한국어 선어말형태 ‘-니-’의 기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⁴⁾

3) 김영옥(1989)에서는 ‘-니-’의 기능을 파악한 여러 논의들을 일원론적 관점과 이원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원론적 관점을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론적 관점이라 명명하였다.

4) (5)의 분류는 기존 논의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5) 중세 한국어 선어말형태 ‘-니-’의 구분(2)

- 가. 동명사적 관점⁵⁾
- 나. 시제·상의 관점
- 다. 서법의 관점
- 라. 청자에 대한 태도의 관점
- 마. 공형태의 관점

(4),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이 논의되어 왔다. ‘-니-’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교적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이를 동명사적 관점으로 파악하였고 시제·상 관련 기능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고영근(1981) 이후, ‘-니-’는 원칙법을 나타내는 서법 형태소로 정리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청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각 관점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중세 한국어 ‘-니-’의 출현 환경을 검토할 것이며 3장에서는 (5)에 제시된 여러 관점들을 살펴보고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니-’의 기능에 대한 본고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출현 환경

문법 형태소의 의미·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출현 환경을 파악하는

5) 동명사적 관점은 ‘-니-’의 기능과 관련되지 않으며 단순히 형태 분석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홍빈(1982)에서는 ‘-니-’에 포함된 동명사 어미 ‘-니’ 시제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명사적 관점’ 역시 기능에 따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것이 우선이다. 어떤 문법 형태소가 특정 환경에서는 자주 실현되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그 문법 형태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제약 때문일 것이다.

중세 한국어 ‘-니-’의 출현 환경은 기존 논의들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허웅(1975), 고영근(1981), 이유기(2013) 등을 참고하여 이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허웅(1975: 966-7)에 기술된 ‘-니-’의 출현 환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6)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출현 환경

가. 종결 어미와의 결합

- 문장종결법: 설명법의 ‘-다’, 의문법의 ‘-오’, ‘-야’ 등⁷⁾

나.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 경어법: 주체높임의 ‘-시-’, 객체높임의 ‘-습-’, 청자높임의 ‘-이-’
- 서법: 직설법의 ‘-느-’, 회상법의 ‘-더-’, 추측법의 ‘-리-’, 확인법의 ‘-거-’, 감동법의 ‘-dot-’
- 인칭/의도법의 ‘-오-’

6) 허웅(1975: 966-7)에서는 ‘-니-’의 결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으니-, -으시니-, 스불시니-, 더시니-, -어시니-, -거시니-, -스불니-, -우니-,
-느니-, -으시느니-, -습느니-, -으리니-, -더니-, -으시더니-, 습더니-, -으리려
니-, -으시리려니-, -다니-, -어니-, -스뵤니-, -려니-, -으시려니-, -스불려니-,
-스보려니-, -거니-, -나니-, -가니-, -도소니-, -으리로소니-’

7) 허웅(1975: 496)에서는 의문법 종결어미로 ‘-으니-’, ‘-으리-’를 앞세운 ‘-가’, ‘-고’를 상정하고 있다. ‘-니-’나 ‘-리-’를 항상 앞세운다는 점에서 이 어미는 ‘-니아’, ‘-니오’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니-’의 출현 환경을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들 어미의 형태를 ‘-오’, ‘-야’로 제시하였을 뿐, 이들 어미의 형태는 각각 ‘-니오’, ‘-니아’ 등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닛가’, ‘-니닛가’, ‘-니잇고’, ‘-녀’, ‘-뇨’ 등도 ‘-니-’가 통합된 의문법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는 종결 어미와의 결합에서 설명법의 ‘-다’, 의문법의 ‘-아’, ‘-오’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은 선어말 형태 ‘-니-’가 이 어미들과 결합한 문장들이다.

- (7) 가. 小人은 스석로 므스미 흐가지니라 <두언 25:15>
나. 엇데 른득 山河 大地 나니오 <능엄 49>
다. 百丈스 히믈 得흐니아 馬祖스 히믈 得흐니아 <몽산 31>

한편, ‘-니-’가 명령법·감탄법 등의 문장종결법 어미와 결합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니-’가 다른 선어말 어미들과 결합하여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겠다.

- (8) 가. 佛은 부테시니라 <석상 서:1>
나. 들흔 塔留흐샤 다시 듣즈불 法을 깃스븨니라 <월석 18:20>
다. 員의 지비 가샤 避仇홍 소니 마리 兩漢 故事에 엇더흐니잇고 <용가 28>
- (9) 가. 持緊은 一乘을 브르느니라 <석상 13:8>
나. 金 부플 티면 十八億 사르미 다 몰더니라 <석상 6:28>
다. 衰老흔 나해 病흐야 오직 여위유니 긴 녀르메 내 뜰흐요믈 스킨거니
라 <두언 16:72>
라. 이제 모랫는 이 世界며 다른 世界엿 諸佛 菩薩 天 龍 鬼神을 네 數
를 알리로소니여 <석상 11:4>
- (10) 부터 方便力으로 三乘敎를 毘요몬 衆生이 … 히려게 흐다니라 <법화 1:158>

(8가, 나, 다)는 ‘-니-’가 경어법 선어말 어미 ‘-시-’, ‘-습-’, ‘-이-’와 각각 결합한 문장들이다. 선어말 형태 ‘-니-’가 경어법과 관련된 특별한 제약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의 예들은 ‘-니-’와 서법 선어말 어미의 결합 양

상을 보인 것이다. 직설법의 ‘-느-’, 회상법의 ‘-더-’, 확인법의 ‘-거-’와 결합할 수 있고 감동법의 ‘-똥-’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감동법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또한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니-’는 인칭/의도법의 ‘-오-’와 결합하는 경우도 확인된다.⁸⁾

고영근(1981)에서는 의문법 어미와 결합된 ‘-니-’를 선어말 어미로 분석하지 않는다. 또한 설명법 어미와 결합한 ‘-니-’도 원칙법의 의미를 갖는 경우만 선어말 어미로 분석한다. 고영근(1981/1998: 35)에서는 원칙법 선어말 어미로 판단한 ‘-니-’의 출현 환경을 제시하였는데⁹⁾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중세 한국어 원칙법 ‘-니-’의 출현 환경

가. 종결 어미와의 결합

- 문장종결법: 설명법의 ‘-다’
- 상대높임법: 허라체, 호쇼셔체, 반말

8) 인칭/의도법의 ‘-오-’와 선어말 형태 ‘-니-’가 결합한 예는 극히 드물다. 앞의 (2)에서 보인 예들 역시 인칭/의도법의 ‘-오-’와 선어말 형태 ‘-니-’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예문들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관형 구성이나 동명사 어미 구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고영근(1981/1998: 35)에서는 원칙법 ‘-니-’의 결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a) 흐느니라, 흐느니이다, 흐느니 / (1b) 하니라, 하니이다, 하니 / (1c) 이니라, 이니이다, 이니
- (2a) 하더니라, 하더니이다, 하더니; 하다니라 / (2b) 하더니라, 하더니이다, 하더니 / (2c) 이러니라, 이러니이다, 이러니
- (3) 흐리니라
- (4) 흐리러니라
- (5a) 흐거니라 / (5b) 하거니라 / (5c) 이어니라

고영근(1981)에서는 서술어의 종류와 관련된 결합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원칙법의 ‘-니-’는 서술어로 동사(하다), 형용사(하다), 계사(이다)와 모두 결합할 수 있었다.

나.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 서법: 직설법의 ‘-느-’, 회상법의 ‘-더-’, 추측법의 ‘-리-’,¹⁰⁾ 확인법의 ‘-거-’
- 인칭/의도법의 ‘-오-’(이 경우는 회상법 ‘-더-’와의 결합형 ‘-다-’만 확인됨)

먼저, 종결 어미와 결합된 원칙법 ‘-니-’의 예들을 살펴보겠다.

- (12) 가.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씨 모로매 늡느니라 <석상 11:36>
나. 그 쏘 흐늡 時節에 자취마다 蓮花 | 나느니라 <석상 11:28>
다. 내히 이러 바르래 간느니 <용가 2>

원칙법의 ‘-니-’는 설명법 어미와 결합하며 (12가, 나)와 같이 호쇼서체, 흐라체 등급의 상대높임법에 실현된다. 또한 (12다)와 같은 반말의 문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반면, 흐야썌체 등급의 상대높임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 (13) 가. 버근 法王이시니 轉法을 조차 흐더시니라 <석상 24:37>
나. 秦 싸해는 당당이 새 드리어니라 <두언 6:11>
다. 부터 方便力으로 三乘教를 비요몬 衆生이 … 허나게 흐다니라 <법화 1:158>

(12)를 통해, 원칙법의 ‘-니-’가 직설법의 ‘-느-’와 결합한 예들을 보았다. (13가, 나)는 이 형태가 각각 회상법의 ‘-더-’, 확인법의 ‘-거-’와 결합한 예들이다. (13다)는 원칙법의 ‘-니-’가 인칭/의도법의 ‘-오-’와 결합한 경우인데

10) 고영근(1981/1998: 35)에서는 ‘-니-’가 추측법의 ‘-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흐리니라’의 어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세 한국어의 실제 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흐+ㄹ#이(계사)+니+라’의 구성으로 파악된다.

이때에는 반드시 회상법의 ‘-더-’와 함께 나타난다.

한편, 이유기(2013)에서는 ‘-니-’의 출현 환경을 제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유기(2013)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평서문의 ‘-니₂-’와 의문문의 ‘-니₁-’를 다른 형태소로 파악하고 있다.¹¹⁾ 다음은 이유기(2013)에서 제시한 선어말 형태 ‘-니-’(평서문의 ‘-니₂-’와 의문문의 ‘-니₁-’를 포함)의 출현 제약을 정리한 것이다.

(14)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출현 제약

가. 문장종결법: ‘-니-’는 평서문, 의문문에만 쓰인다.

(평서문 중에서도 원망 구문, 감탄 구문, 약속 구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나. 語釋 구문: ‘-니-’는 語釋 구문의 NP 서술어에 쓰이는 일이 극히 드물다.

다. 접속 구문: ‘-니-’는 접속 어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6)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니-’는 설명법, 의문법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유기(2013)에서는 평서문 중에서도 원망 구문, 감탄 구문, 약속 구문에는 ‘-니-’가 실현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을 [+상관성] 장면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¹²⁾

다음으로, 語釋 구문의 NP 서술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語釋 구문이란 중세 문헌의 夾註 가운데 단어의 뜻풀이를 주로 하는 구문으로 해당 용어의 사전적 해석뿐 아니라, 용어의 외연을 지정하거나 지시 대상을 지정하거나 객관적 정보를 보충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구문을 말한다(이유기 2013: 180).¹³⁾ 이러한 구문의 서술어가 NP일 경우, 선어말 형태 ‘-니-’가 결합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각각의 예들이다.

11) ‘-니-’를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에는 (4)에서 제시한 번호를 아래첨자로 붙여 표시할 것이다.

12) 이에 대해서는 3.4.에서 후술함.

13) 語釋 구문은 이현희(1994)의 의미해석 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15) 가. 御製는 님금 지스산 그리라 <훈언 어지>
 나. 七寶는 금과 은과 … 赤眞珠와라 <월석 1:27>
 다. 老盧는 六祖 | 라 <금삼 3:19>
 라. 厲王 열흔찰 히 쫓巳 | 라 <법화 1:158>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유기(2013: 812)에서는 “語釋 구문이 객관적 통보 상황이기 때문에 양태나 화용적 태도를 드러내는 ‘-니-’가 나타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語釋 구문에서도 ‘-니-’가 실현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¹⁴⁾

- (16) 가. 佛은 부테시니라 <석상 서:1>
 나. 眷屬은 가시며 … 다 眷屬이라 흐느니라 <석상 6:5>
 다. 和尚은 스스을 니르니라 <석상 6:10>
 라. 妙眞淨身은 淸淨法身을 슬뵈시니라 <월석 서:5>

(16)의 예들은 모두 語釋 구문에 ‘-니-’가 실현된 경우이다. (16가)는 서술어가 NP인 ‘부터’로 위 제약의 명백한 반례라 할 수 있다. 또한 (16나, 다, 라)의 경우는 語釋 구문이지만 그 서술어가 용언인 것들이다. 전술한 제약의 반례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語釋 구문이 객관적 통보 상황이기 때문에 ‘-니-’가 실현될 수 없다는 설명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14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어말 형태 ‘-니-’는 접속 어미와 결합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유사한 형성 과정을 갖는 선어말 어미 ‘-리-’가¹⁵⁾ 여러 접속 어미와 결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니-’만의 결합 제약임

14) 장윤희(2002)에서도 ‘-니-’가 협주에서 글자의 개념적 의미를 제시하는 의미해석 구문에는 쓰이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유기(2013)의 語釋 구문은 장윤희(2002)의 개념적 의미를 제시하는 의미해석 구문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인다.

15) 선어말 형태 ‘-니-’와 ‘-리-’는 모두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 계사’ 구성의 문법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完鎭(1957), 李基文(197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을 알 수 있다.¹⁶⁾

한편, 선어말 형태 ‘-니-’는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니-’의 기원적 구성(동명사 어미 + 계사)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어말 어미 ‘-리-’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의 결합이 확인된다.

3.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

3.1. 동명사적 관점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ㄴ-’과 계사 ‘-이-’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amstedt(1939: 73-74)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니라, -리라’를 관형사형 어미 ‘-n, -l’에 첨사 ‘-ira’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였으며 梁柱東(1943/1965: 265-270)에서는 ‘용언 어간+ㄴ, ㄹ’이 기원적으로는 명사형이었으며 이에 서술격 조사가 뒤따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구성이 명사문임을 주장하였다.

金完鎭(1957: 59-65)에서는 ‘-n, -l’ 계열의 명사문이 알타이 제어에 존재했음을 밝히고 중세 한국어의 ‘-니라’ 역시 이러한 구성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ㄴ(ㄹ)+이라’ 구조가 와해되어 15세기 이전에 이미 선어말 어미 ‘-니-’, ‘-리-’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임흥빈(1982)에서는 중세 한국어 ‘-니라, -리라’ 구성의 ‘-ㄴ, -ㄹ’을 15세기 공식적으로도 동명사 어미로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ᄃ시느로, 슬플 읍시’ 등의 ‘-ㄴ, -ㄹ’은 동명사 어미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ᄃ니라, ᄃ리라’의 ‘-ㄴ, -ㄹ’ 역시 동명사 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시제 해석 관련 문제는 동명사 해석 원리

16) 이에 대해서는 3.5.에서 후술함.

라는 몇 가지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동명사 어미로 볼 수 있는 ‘-ㄴ, -ㄹ’의 예들이다.¹⁷⁾

(17) 가. 그똥 흔 조초 헛야 <석보 6:8>

나. 威化振旅 헛시느로 輿望이 다 못즈뵤나 <용가 11>

다. 너퍼 돕스오미 다울 업서 <법화 서:18>

라. 두루 아니 홀 아니 헛시나 <금강 5:10>

동명사 어미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제·상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서법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李基文(1972/1998: 32)에서는 알타이 제어의 동명사 어미로 ‘-n, -m, -l’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시제와 관련하여 각각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심재기(1979: 118)에서는 ‘-ㄴ’을 [+완료성, +결정성], ‘-ㄹ’을[-완료성, -결정성]의 의미 자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니-’의 ‘-ㄴ’을 동명사 어미로 파악한다면, 앞서 살펴본 ‘-니-’의 결합 제약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선어말 형태 ‘-니-’는 일반적인 평서문에서 사용되지만, 원망 구문이나 약속 구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ㄴ’의 [+완료성, +결정성] 자질과 이러한 구문이 공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결정된 사실에 대해 바라거나 약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語釋 구문의 제약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유기(2013)에서는 語釋 구문이 상정하고 있는 ‘객관적 통보 상황’이 ‘-니-’의 [+상관성] 자질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16)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니-’는 語釋 구문에 쓰일 수 있다. ‘-니-’는 語釋 구문의 서술어가 NP일 경우에만 제약된다. 따라서 이는 ‘-니-’의 [+상관성] 자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니-’의 ‘-ㄴ’이 동명사 어미와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어말 형태 ‘-

17) 중세 한국어에 동명사 어미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동명사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니-’의 경우는 동명사 구성만으로 보기 어렵다.

니-'가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와 공기할 수 없는 것도 同軌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명사적 관점을 취하면, 선어말 형태 '-니-'의 결합 제약 일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지만 이것이 공시적으로 선어말 형태 '-니-'를 동명사 어미 '-ㄴ-'과 계사 '-이-'로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와 관련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결합 제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옥(1989)에서는 중세 한국어 '-니라'의 '-ㄴ-'이 동명사 어미일 수 없음을 그 구조적 특성을 들어 주장한 바 있다. 김영옥(1989: 28)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8) 가. '-ㄴ-'이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나. '흐느니라'에서 'ㄴ-'이 빠진 '*흐니라'와 같은 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흐느니라'의 'ㄴ-'이 'ㄱ, ㄴ' 등의 다른 동명사 어미로 대체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흐느리라', '*흐느미라' 등의 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18)을 통해, '흐느니라'가 '흐느+이라'와 같이 분석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18) 결과적으로 '흐느니라'는 '흐+느+니+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근거는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19)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ㄴ-'과 관련되지

18) 김영옥(1989)에서 제시한 (18가, 나)의 근거는 문제가 있다. 모든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때문'의 경우 주어로 쓰일 수 없는 명사이다. 따라서 '-ㄴ-'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 '-ㄴ-'이 동명사 어미가 아닌 것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흐니라'가 불가능한 것은 계사 '-이-'의 host인 '-ㄴ-'이 부재하기 때문인데 이것 역시 '-ㄴ-'이 동명사 어미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를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다만, 본문 (18다)와 각주 18)의 현상을 고려할 때, 김영옥(1989)의 결론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흐느니라'에서 '-느-'가 빠진 '흐니라', '-니-'가 빠진 '흐느다' 등의 어형, '흐느니라'에서 '-느-'가 '-더-'로 대체된 '흐더니라', '흐니라'에서 '-니-'가 '-리-'로 대체된 '흐리라' 등의 어형을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 공시적으로는 ‘-니-’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3.2. 시제 · 상적 관점

나진석(1971: 246)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들어, ‘-니-’를 과거(지난적)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파악하였다.²⁰⁾

- (19) 가. 어엿브신 命終에 甘蔗氏 니스샤물 大瞿曇이 일우니이다 <월곡 5>
나. 그 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불니라 <월석 1:7>
다.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벨 미드니잇가 <용가 125>
라. 이는 百丈스 히물 得히니아 馬祖스 히물 得히니아 <몽법 31>

나진석(1971)에서는 (19가)의 ‘일우니이다’는 “이루어 있었습니다”로 해석하고 (19다)의 ‘미드니잇가’는 “믿고 있었습니까?”로 해석하였다. (19가)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이적 끝남)’로, (19다)에 대해서는 ‘과거 진행(지난적 나아감)’으로 각각 달리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과거 시제(지난적)’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면서, 나진석(1971: 249)에서는 “{니}의 본질적 의미를 끝남으로 잡고, [때]의 [지난적]을 표현하는 경우는 그 전의(轉義)로 보면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진석(1971)에서는 {니}의 기본 의미를 완료상으로 보고 이것이 맥락에 따라 과거 시제로 해석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홍종선(2008)에서는 ‘-니-’의 기능은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때 시제의 의미를 잃게 된다 하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20) 나진석(1971: 247-248)에서는 ‘니이다’, ‘니잇가’의 ‘니’, ‘니라’, ‘니아’의 ‘니’, ‘니가’, ‘니고’의 ‘니’, 관형사형의 ‘니’를 모두 묶어 ‘{니}’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모두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 가. 對答호더 “벌써 命終호니라” <월석 9:36>

나. ㄹ ㄹ애 자겨를 밀뜨리 사으리로더 나가샤 즈므니이다 <용가 67>

다.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용가 125>

(20가)의 “命終호니라”는 ‘죽었다’로, (20나)의 “즈므니이다”는 ‘잠기었습니다’로, (20다)의 “미드니잇가”는 ‘믿었습니까?’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때의 과거 시제를 어떤 형태소가 나타내고 있는가이다. 홍종선(2008)에서는 이를 ‘-니-’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는 ‘-니-’ 없이도 과거 시제로 해석되는 구문이 존재한다.

(21) 가. (世尊) … 내 正法을 護持호라 호시이다 <석상 24:45>

나. 주거미 닐오더 “내 호마 命終호라” <월석 9:36>

다. 이뻘 아들돌히 아버 죽다 듣고 <월석 17:21>

(21)의 예들은 모두 과거로 해석될 수 있다. (20)의 예문과 달리, 이 문장들의 서술어에는 ‘-니-’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고영근(1981)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정법이 실현된 것으로 설명한다. 중세 한국어의 동사 어간에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을 경우, 영형태(Ø)의 부정법이 실현되어 과거로 해석된다. 이는 나진석(1971)에서 제시한 (19)의 예들에도, 홍종선(2008)에서 제시한 (20)의 예들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부정법을 인정하게 되면 ‘-니-’의 기능을 과거 시제 표지로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니-’를 과거 시제 형태소로 본다면, 2장에 살펴본 결합 제약을 설명하기 어렵다. 시제 형태소가 특정한 문장종결법에만 실현된다든지, 접속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든지, 語釋 구문의 NP 서술어와 결합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중세 한국어 선어말 형태 ‘-니-’는 과거 시제 형태소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허웅(1975)에서는 ‘-니-’의 기능을 확정법(기정법)으로 파악한 바 있다.

허용(1975)의 확정법(-니-)은 현실법(-느-), 추정법(-리-), 회상법(-더-)과 함께 때때김법으로 묶인다는 점에서 시제의 관점을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허용(1975)에서는 때때김법(시제)이 서법에 기대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니-’를 순수한 시제 형태소로 파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3. 서법의 관점

고영근(1981) 이래로 중세 한국어 ‘-니-’의 기능은 원칙법이라는 서법 범주로 설명되어 왔다. 원칙법은 ‘화자가 사태를 원칙적·불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청자에게 알림’으로 정의되는 서법이다. 이는 현대 한국어 ‘-니라’의 사전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니라’, ‘-느니라’ 항목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22) ‘-니라’에 대한 설명의 일부

(‘있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줄 때에 예스럽게 쓰이는 종결 어미
 예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려라. 잊는 것이 제일이니라.

(23) ‘-느니라’에 대한 설명의 일부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줄을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문: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느니라. / 여기엔 큰 못이 있었느니라.

(22), (23)에서 확인되는 ‘-니라’, ‘-느니라’의 기능은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줌” 또는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과 [일러줌 또는 가르쳐줌]이 그것이다. 고영근(1981)의 정의에도 [원칙적·불변적인 사실]과 [청자에게 알림]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²¹⁾

먼저,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전의 예문을 보면, [잇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명제,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라는 명제에 ‘-니라’ 또는 ‘-느니라’가 결합하여 이러한 명제가 ‘진리이거나 으레 있는 사실’이라는 화자의 판단·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라’, ‘-느니라’ 없이도 이 명제들은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24) 가.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려라. 잇는 것이 제일이다.

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다.

(25) 가. 여기엔 큰 못이 있었느니라.

나. 나는 어제 밥을 먹었느니라.

(24)의 예들이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로 해석되는 것은 명제 자체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니라’, ‘-느니라’의 실현 여부와 관련되지 않는다.²²⁾ 한편, (25)의 예들은 ‘-느니라’ 실현되었지만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로도 ‘원칙적이거나 불변적인 사실로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이다.²³⁾ 특정 문장이 원칙법의 서법 의미를 갖는다면 이것은 ‘-니라’의 실현 여부보다는 명제 자체의 내용이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²⁴⁾

21) [일러줌 또는 가르쳐 줌]과 [청자에게 알림]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기능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사전에서 일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엄밀한 문법 용어를 사용한 것 정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전 기술에 따르면 (24)의 예문은 “예스러운 표현”이므로 현대어와 그 직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 ‘으레 있는 사실’, ‘원칙적·불변적인 사실’ 등은 언어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4) 익명의 심사자께서 (25)의 예문들에서도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기

원칙법과의 비교를 위해, 추측법의 서법 의미가 실현되는 문장들을 살펴 보자.

- (26) 가. 밖에 비가 온다.
나. 밖에 비가 오겠다.
다. 밖에 비가 올 수도 있다.
- (27) 사람들도 늙으면 다 죽겠지.

(26)의 명제는 [밖에 비가 오-]이다. (26나)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해당 명제가 사실일 개연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26다)에서는 우언적 구성 ‘-르 수도 있-’을 사용하여 “밖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명제 자체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다. 이는 ‘-겠-’, ‘-르 수도 있-’ 등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27)에서는 [사람들도 늙으면 다 죽-]라는 명제의 내용이 진리 또는 객관적 사실임에도 화자의 개연성 판단을 ‘-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추측법의 서법 의미는 명제 자체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으며 어떤 서법 형식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다음으로, 중세 한국어의 원칙법이 실현된 전형적인 문장을 살펴보겠다.

- (28=1) 가.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썌 모로매 늙느니라 <석상 11:36>
나. 사롬도 오라면 늙느니 人生에 免히리 업스니라 <석상 3:17>

(28)은 (1)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28가)는 “사람이 살면 죽음이 있으므로 모름지기 늙느니라”로 해석할 수 있고 (28나)는 “사람도 오래되면 늙으니 인생에 면할 이가 없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이 원칙적이거나 불

때문에 이때의 ‘-(느)니라’를 서법/양태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모든 범주를 양태나 서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양태 또는 서법의 외연이 너무 넓어져서 자칫 쓸모없는 범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양태의 의미 범주로 박재연(2006), 문병열(2007) 정도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변적인 사실의 어감을 갖는 것은 명제 자체의 의미 때문이지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에 의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니-’ 없이도 이러한 어감이 확인되는 문장들이 확인되며 ‘-니-’가 있음에도 원칙법의 어감이 없는 문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9) 사르미 목수미 無常^하 거시라 <월석 7:2>

(30) 가. 너를 외에 아니호노니라 <범어 3>

나. 집안 사르물 다 眷屬이라 호느니라 <석상 6:5>

(31) 가. 市橋는 在成都西南^하다 <두언 7:6>

나. 碧雞坊은 在成都^하니라 <두언 7:5>

(29)는 ‘-니-’ 없이도 원칙법의 어감이 확인되는 문장이다. 이는 고영근(1981: 126)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30가, 나)는 ‘-니-’가 실현되었지만 원칙법의 어감이 없는 예들이다. (31가, 나)는 김영옥(1989: 30)에서 제시한 것으로 두 구문의 차이가 전혀 없으나 한 쪽에는 ‘^하다’가, 다른 쪽에는 ‘^하니라’가 사용된 문장들이다. 위의 예들을 고려해 보면, ‘-니-’에 더 이상 원칙법의 기능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고영근(1981)에서는 (30), (31)의 ‘-니라’에 대해 ‘둘째설명법 어미’라 명명하여 이들을 원칙법 ‘-니-’와 구별하고 있다. 둘째설명법 어미의 ‘-니라’에는 원칙법의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원칙법의 ‘-니-’와 둘째설명법의 ‘-니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이다. 고영근(1981)에서는 이를 원칙법의 ‘통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원칙법이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과 [일러줌 또는 가르쳐줌]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설명법 어미는 원칙법의 두 번째 기능인 [일러줌]이 없다는 것이다. 원칙법의 ‘-니-’는 [+상관성] 장면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지만,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는 [-상관성] 장면에서 사용되어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없으며 이를 통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30), (31)의 예문들은 모두

실제 대화 상황([+상관성] 장면)에서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명제의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며 이 때문에 이러한 구문의 ‘-니라’는 원칙법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보적 기능만으로 원칙법과 둘째설명법이 구별된다면 원칙법은 더 이상 ‘진리’나 ‘확정적·불변적 사실’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원칙법’이라는 서법 범주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3.4. 청자에 대한 태도의 관점

원칙법의 기능 중 청자에 대한 통보적 기능만 인정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서법 범주로 남기 어려울 것이다. ‘-니-’의 의미를 이러한 화용적 기능으로 파악한 논의로는 장윤희(2002), 이유기(2013) 등이 있다.

장윤희(2002)에서는 원칙법의 ‘-니₂-’를 인정하였으며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니₃-’를 “실제 청자를 염두에 둔 듯이 말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선어말 어미로 파악하였다(장윤희 2002: 164).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32) 가. 실제 대화 상황에서 ‘-다’는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하여 문장을 종결할 수 없지만 ‘-니라’는 가능하다.
- 나. 의미해석구문에서 글자의 개념적 의미를 제시할 때는 ‘-다’만 사용되었다.

다음은 장윤희(2002: 156-159)에 제시된 예들이다.

- (33) 가. 帝釋이 날오디 부테 아래 혼 니를 몬져 주시니라 호고 <석상 23:47>
나. 다른 나라해 가 사롬브려 도라와 날오디 네 아비 호마 주그니라 ___ <월석 17:21>
- (34) 가. 밥 비러 林에 도라오다 호샤민 <능엄 1:54>
나. 이뻘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고 <월석 17:21>

(35) 가. 국은 나라히라 <훈언 1>

나. 당가 들며 서방 마조물 다 婚姻하다 하느니라 <월석 2:16>

(33)의 예문은 모두 실제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말하는 장면의 문장들이다. 이때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동사 어간에 ‘-니라’가 직접 결합되었다. (34)는 간접 인용문의 예인데 이때에는 동사 어간에 ‘-다’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33)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동사 어간에 직접 ‘-다’가 결합하는 예는 적어도 15세기에는 찾아볼 수 없다. (35)는 의미해석구문의 예인데 글자의 개념적 의미를 제시하는 문장들이며 이때에는 ‘-니라’가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동사 어간에 다른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경우, 실제 대화 상황의 문장에서도 종결 어미 ‘-다’가 사용되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36) 가. 天龍 鬼神들과 사름과 사름 아닌 것괘 香華伎樂으로 상네 供養하습
는 야이 다 되느다 <석상 13:24>

나. 모다 날오디 舍利弗이 이긔어다 <석상 6:33>

다. (太子) 날오디 金으로 짜해 衫로물 뽐 업게 하면 이 東山을 핀로
리라 <석상 6:24>

라. 護彌 날오디 소리뿐 듣노라 <석상 6:15>

(36)은 동사 어간과 종결 어미 ‘-다’ 사이에 ‘-느-, -여-, -리-, -오-’ 등의 선어말 어미가 개재된 예들이며 모두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장들이다. 장윤희(2002)에서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실제 대화 상황에 사용되는 문장과 동사 어간과 종결 어미가 직접 결합하여 대화에 쓰일 수 없는 문장을 구분하여 후자를 일종의 절대문으로 보고 있다. ‘-니라’가 절대문의 종결 어미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결국 ‘-니라’의 ‘-니-’가 선어말 어미로 분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니-’의 기능은 “실제 청자를 염두에 둔 듯이 말하다” 정도로 파악하였다.²⁵⁾

그러나 위의 자료는 ‘-니라’가 절대문 어미로 사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

니라'의 '-니-'를 선어말 형태로 석출해야 함을 보이는 것이지 이때 '-니-'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다. 장윤희(2002: 164)에서 상정한 "실제 청자를 염두에 둔 듯이 말하다"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니-'의 기능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유키(2013)에서는 '-니-'의 기능을 '인지 요구'라 하였다. 인지 요구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서술문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심리적인 것"이라 하였다.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화자가 설명법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을 청자가 잘 인식하기를 바라는 심리적 요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유키(2013)에서도 절대문에 사용된 '-다'와 '-니라'를 비교하여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절대문이 아닌 문장에 사용된 '-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요컨대 절대문이 아닌 문장에 쓰인 '-다'에는 인지 요구가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3.5. 공형태의 관점

아무런 문법적 기능을 지니지 않으면서 형태만 존재하는 것을 공형태라 한다(김영옥 1989: 33). '-니라'에서 석출되는 '-니-'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은 결국 공형태가 될 것이다. 김영옥(1989)에서는 원칙법의 '-니₂'를 인정하면서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니₃'는 공형태라 하였다. 고영근(1981)의 설명을 따르되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를 구조적 관점에서 '-니-'와 '-라'의 결합으로 분석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니라'의 선어말 형태 '-니-'가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석출된 '-니-'에서 특별한 의미·기능을 찾을 수 없기에 이를 공형태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는 둘째설명법 어미에서 석출되는 '-니₃'와 원칙법의 '-니₂'를

25) 장윤희(2002)에서는 '-니-'의 기능을 특정하여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청자를 염두에 둔 듯이 말하다'라는 기능도 각주를 통해 가볍게 언급한 것이다.

모두 공형태로 상정하고자 한다.²⁶⁾ 원칙법의 ‘-니₂-’와 둘째설명법의 ‘-니₃-’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 모두 그 의미·기능이 없거나 또는 매우 약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²⁷⁾ 김영옥(1989), 박진호(2013) 등에서도 ‘-니-’의 기능이 없는(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니₃-’가 공형태로 되는 과정에 대해 김영옥(1989)에서는 비문법화로 설명하였고 박진호(2013)에서는 의미의 추상화/회색화 또는 관습화로 설명하였다.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을 알 수 없다면 그 형태가 보이는 통사적 결합 제약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해당 형태의 기원과 역사적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면 그 형태가 보이는 통사적 결합 제약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기능이 사라지더라도 이전 시기의 결합 제약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金完鎭(1957), 李基文(1972)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어말 형태 ‘-니-’는 동명사 어미 ‘-ㄴ’과 계사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동명사 어미 ‘-ㄴ’은 시제적으로는 과거와 관련되며(이기문 1972), 상 또는 서법적으로는 [+완료성, +결정성]의 의미 자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재기 1979). 또한 동사를 명사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ㄴ + -이-’의 결합은 같은 구조를 보이는 ‘-ㄴ +-이-’와 함께 중세 한국어 시기 이전에 선어말 형태로 재구조화된다(金完鎭 1957). ‘흐니라’, ‘흐리랴’는 더 이상 ‘흐+이랴’, ‘흐+이랴’로 분석되지 않고 ‘흐+니+랴’, ‘흐+리+랴’로 분석된다. 이들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니-’, ‘-리-’를 석출할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²⁸⁾ 따라서 중세 한국어 시기의 ‘-니-’를

26) 본고에서는 의문문에 나타나는 ‘-니₁-’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다만, 의문문의 ‘-니-’ 역시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 계사’ 구성에서 형성된 점, 특별한 의미·기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서문의 ‘-니-’와 같은 공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7) ‘-니₃-’를 공형태(의미가 없는 것)로 파악한 대표적 논의는 김영옥(1989)라 할 수 있고, 이를 매우 의미가 약한 것으로 파악한 대표적 논의는 장윤희(2002)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원칙법의 ‘-니₂-’ 역시 공형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들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28) 앞서 3.1.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동명사 어미와 계사의 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²⁹⁾

‘-니-’의 기원을 알면 그 결합 제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니-’가 명령문이나 청유문, 평서문의 약속 구문·원망 구문에 쓰이지 않는 것은 ‘-니-’의 기원적 형태인 동명사 어미 ‘-ㄴ-’의 [+완료성, +결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語釋 구문의 NP 서술어와 ‘-니-’가 결합하지 않는 것, 관형사형 어미 ‘-ㄴ-, -ㄹ-’과 결합하지 않는 것 역시 동명사 어미 ‘-ㄴ-’이 명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선어말 형태 ‘-니-’에서 동명사 어미 ‘-ㄴ-’을 석출할 수는 없지만 이전 시기의 결합 제약이 ‘-니-’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 이러한 문장들에서는 ‘-니-’의 실현이 불가하거나 선호되지 않는다.

선어말 형태 ‘-니-’에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ㄴ-’의 [+완료성]에 이끌려 ‘-니-’의 기능을 완료상(나진석 1971)이나 과거 시제(홍종선 2008)로 보려 하거나 [+결정성]에 이끌려 확정법(허용 1975)이나 원칙법(고영근 1981)으로 보려 하였다. 또한 원칙법에서 ‘원칙’이나 ‘확정적 사실’의 의미를 제거하고 ‘통보적 기능’(장윤희 2002), 또는 ‘인지 요구’(이유기 2013)를 ‘-니-’의 기능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논의들에서 제시한 각각의 기능들은 ‘-니-’가 실현된 일부 문장들에서는 확인되지만 또 다른 문장들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간취되지 않는다. ‘-니-’에 포함된 동명사 어미 ‘-ㄴ-’의 [+완료성, +결정성]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맥락이 선호될 뿐, 이중 하나를(또는 전부) ‘-니-’의 기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특정 형태가 선호하여 자주 쓰이는 맥락의 의미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리-’가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리-’는 ‘-니-’와 같이 ‘동명사 어미 + 계사’의 구조에서 선어말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동명사 어미 ‘-ㄹ-’은 [-완료성, -결정성]의 자질을 갖는데 이의 영향으로 ‘-리-’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맥락에 자주 사용되었을 것이고 이 맥락의 의미를 흡수하여 [추측] 또는 [미래]의 기능을 갖게 된다.

‘-니-’와는 달리, ‘-리-’는 구조적으로도 선어말 형태로 분석될 수 있고 기

29) 임홍빈(1982)에서는 중세 한국어 시기의 ‘-니-’를 ‘-ㄴ+이-’로 분석하였다.

능적으로도 [추측] 또는 [미래]의 의미를 갖게 되어 온전한 선어말 어미로 기능하게 된다. 그 결과, ‘-리-’는 다양한 접속 어미와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³⁰⁾ 심지어 관형사형 어미(이전 시기의 동명사 어미) ‘-ㄴ’과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온전한 선어말 어미로 볼 수 없는 ‘-니-’는 이러한 결합이 불가하다.

중세 한국어 ‘-니라’의 ‘-니-’는 구조적으로 선어말 형태로 분석될 수 있다. 다만, 기능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선어말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니라’의 ‘-니-’는 결합 단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능 단위로는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³¹⁾ 결합 단위로 분석된 ‘-니-’는 넓게 보면 선어말 어미와 같은 계열체로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종결 어미 ‘-니라’가 절대문 어미로 사용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흐느다’, ‘흐더라’, ‘흐리라’ 등의 어형과 ‘흐니라’를 같은 유형으로 파악하여 ‘-니라’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니라’는 절대문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니라’가 사용된 문장은 청자에 대한 통보적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통보적 기능은 ‘흐느다’, ‘흐더라’, ‘흐리라’ 등이 사용된 문장에서도 확인되는데 절대문이 아닌 일반적인 쓰임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보적 기능을 ‘-니-’의 고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니-’의 기능을 동명사적 관점, 시제·상적 관점, 서법의 관점, 청자에 대한 태도의 관점 등을 취하여 매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 왔다. 이

30) 허용(1975: 997-8)에 의하면 선어말 어미 ‘-리-’는 ‘-으니’, ‘-을씨’, ‘-은대’, ‘-은덴’, ‘-관디’, ‘-으냐’, ‘-고’, ‘-곡’, ‘-으며’, ‘-다가’, ‘-곤’ 등의 접속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31) 결합 단위 분석과 기능 단위 분석은 임동훈(1995)를 참고할 수 있다.

러한 논의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 1) 선어말 형태 ‘-니-’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ㄴ’과 계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 2) ‘-니-’는 15세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선어말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니-’만의 의미·기능을 획득하지 못했다.
- 3) 공시적으로 ‘-니-’는 기능이 없지만 이전 시기 동명사 어미 ‘-ㄴ’의 영향으로 배제되거나 선호되지 않는 맥락과 선호되는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 4) 기존 논의들이 제시한 ‘-니-’의 기능들은 모두 ‘-니-’가 선호되는 맥락의 의미이지 ‘-니-’의 본질적 의미라 할 수 없다.
- 5) 이런 점에서 ‘-니-’는 결합 단위로는 분석되지만 기능 단위로는 분석되지 않는 공형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문문에 실현되는 ‘-니-’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의문문의 ‘-니-’ 역시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 계사’ 구성에서 형성된 점, 특별한 의미·기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서문의 ‘-니-’와 같은 공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니-’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 ‘-니-’의 실현 양상과 그 이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 ‘-니-’의 기능을 공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하여 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니-’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면 중세 한국어 시기 ‘-니-’의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 김영욱(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36.
- 김완진(1957), -n, -1 동명사의 통사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13), 日本語の「ノダ」文と韓國語の「-은 것이다」構文をめぐって, 일본 도쿄대학 Korea 콜로키움 발표자료집.
- 삼재기(1979), 관형화의 의미 기능, 《어학연구》 15-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양주동(1943/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임홍빈(1982), 동명사 구성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이우출판사.
- 이기문(1972/1998), 《개정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이남덕(1967), 15세기 국어의 직설법 종결어미 변화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1, 이화여자대학교, 11-32.
- 이승녕(1961/19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유기(2013), 선어말 형태소 ‘-니-’의 기능,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173-204.
- 이인모(1976), 《고전국어의 연구(증보개정판)》, 선명문화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 어학연구소,

87-138.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종선(2008), 국어의 시제 형태소 체계와 그 기능 변이, 《한글》 282, 한글학회, 97-123.

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7/역대문법대계 2부 5책 제수록.

【Abstracts】

On the prefinal morph '-ni-' in Middle Korean

Moon, Byoungyul

The function of Middle Korean prefinal morph '-ni-' is known as Apodictive mood(원칙법). Apodictive mood is defined as "the speaker recognizes the situation as a principle and invariable fact and notifies the hearer". However, even though '-ni-' was realized, sentences that do not realize the meaning of the apodictive mood are found in many of Middle Korean documents. For this reason, the discussions of the various viewpoints of the function of the '-ni-' are foun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function of Middle Korean '-ni-' from the viewpoints of the gerund, the tense-aspect, the attitude of the hearers and the empty morph. And the problems of each viewpoint are summariz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prefinal morph '-ni-' as a empty morph which is analyzed as a syntagmatic unit but is not analyzed as a functional unit. In addition, there is a preferred context and an undesirable context due to the influence of the 'gerund ending(-n) + copular', which is the original composition of '-ni-' 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function of '-ni-' presented in the existing discussions is not the essential meaning and function of '-ni-', but which is the meaning of the context in which '-ni-' is preferred.

Key Words : prefinal morph '-ni-', tense, aspect, mood, gerund ending, empty morph

이 논문은 2019년 06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